

너구리와 원승이가 숲속 오솔길을 함께 가다가 탐스럽게 잘 익은 산머루 한 그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너구리가 자기가 먼저 발견했으니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승이도 지지 않고 원래부터 자기 것이었다고 우겼습니다. 그러다가 서로 공평하게 나무를 나누어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악삭빠른 원승이가 산머루 나무의 허리를 잘라 머루가 달려 있는 위쪽을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너구리는 순순히 뿌리만 달려 있는 아랫부분을 가져갔습니다. 원승이는 잘 익은 머루를 맛있게 먹었고 너구리는 산머루 나무를 집 마당에다가 심었습니다. 원승이는 한 해만 산머루를 먹고 말았지만, 너구리는 해마다 산머루를 따먹고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구요. “현재의 시급한 욕구는 언제나 미래의 더 중요한 가치를 이기게 마련이다.” 그러니까 내일은 뭐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는 피할 수 없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죠. 쉽게 타협하고 쉽게 넘어지고요. 하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집착하면 머지않아 정말 중요한 것을 잃게 됩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우리의 삶이 지치고 힘들 때, 생명력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계신지 자문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하는 동안 광야에서 물이 쓰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또 양식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먹었던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 그때가 좋았는데~” 라며 7가지나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죠. 고기,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값없이 즉 공짜로 먹었다고 말이죠.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동안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동자가 아니었고, 노예였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야말로 뼈가 빠지게 일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지금은 사실을 왜곡하면서까지 과거 속에 빠져 있는거죠. 그것에 비하면 지금 그들 눈 앞에 있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6절

에,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 것도 없도다.” 7대1이죠! 애굽에서 공짜로 먹었던 7가지 음식에 비해 그들 눈앞에 있는 건 단 한가지! 만나뿐이라고 했어요. 게다가 맨날 만나만 먹다보니까 이제 기력도 다했다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표현으로는, ‘고기를 잔뜩 먹었던 때도 아니고,’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 를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불만이라는 것은 지나간 것을 과장하게 만들구요, 현재의 것을 험뜯게 만든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의 부족함 때문에, 그들은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과거 애굽의 중 되었던 때를 생각하며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할 때부터 수시로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어떤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었나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를 의심하고 불신했습니다. 우리들도 조심해야 하겠죠.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 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았습니다. 애굽에서 열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중 되었던 것으로부터 구원하셨잖아요! 광야에서도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주를 따라봐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광야의 햇볕이 너무 강렬하니까요, 또 반석에서 물이 터지고, 홍해를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도 코로나19라는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자연재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업도 경제도 어느정도 어려워졌고, 인간관계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지만요. 여러가지 문제와 부족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의 현실만 크게 보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아니 계신가” 혹시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

예굽 후 두달 반되는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신광야에서 처음으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 장 4절에는 ‘그것은 하늘로부터 비같이 내린 양식’ 이었다고 기록되어 있구요. ‘갓싸 같기도 하고 희고 맛은 꿀섞은 과자 같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나’ 라는 말의 뜻은, (문어체로 직역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구어체로 바꾸면) 이게 뭐지? (궁금/놀라움 표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주셨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거둬들일 때에는 한번에 한달치나 일주일치를 쌓아 놓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안식일 하루 전만 이를치를 거둬들이게 하시고, 나머지는 매일 매일 들로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어려움의 시간에 광야 같은 세상에 나가서 매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처럼 붙들고 사는 훈련을 할 때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서 10명의 문둥병 환자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이 예수님께 나아와 치유함 얻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치유하셨습니다. 나머지 9명은 기쁨으로 뿔뿔히 흩어졌으나, 오직 1명은 예수님께 나아와 감사했습니다. 나머지 9명의 목적은 “문제의 해결” 자체가 목적이었죠. 아픈 것이 치유되는 것 말입니다. 배고픈 것이 해결되는 것 말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말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적의 행사’ 혹은 ‘문제의 해결’ 자체에 역매이지 아니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러한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삶에도 다양한 문제들이 저희들을 시험합니다. 낙심케도 해요. 그러나, 문제의 해결에 앞서서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고마 감자가 엄마 감자에게 물었네요. “엄마, 나 감자 맞아?” 엄마 감자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근이지!” 그 길로 고마 감자는 가출했습니다. 엄마 감자가 자기보고 ‘당근’ 이라고 말하자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기 때문이래요. 가출을 했다가 돌아온 고마 감자가 할머니 감자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감자 맞아?” 경상도 출신의 할머니 감자가 대답했습니다. “오이야(오

나)” 그 길로 고마 감자는 또 다시 집을 나갔다고 해요.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느라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언약궤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있었고, 그 안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지성소 가장 깊숙한 정중앙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세 가지 물건이 뭔지 아시지요? 십계명 돌판, 아론의 싹 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향아리. 그런데, 이 세 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이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인간들의 불평과 죄의 흔적들이 담겨 있는 물건들이라는 거예요. 세 가지 다!

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짐승 잡은 피로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려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건, 우리의 죄를 속죄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자기 자신과 공동체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들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덮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자기 어머니 화장대 위에 청구서 비슷한 글을 하나 적어 놓았다고 그래요.

“엄마 없을 때 동생 들봐준 값 500원 /방 청소한 값 500원

아빠 구두 닦아 준 값 500원 /엄마 심부름 한 값 500원

산수 시험 100점 맞은 것 1000원

모두 합해서 3000원” 그리고 그 밑에 쓰기를...

“내일까지 꼭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까지는 꼭 주셔야합니다)”

이 아이가 학교에 갔다 돌아오니 아이 책상위에 어머니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잔뜩 기대를 하고 열어 보았더니 편지가 한장 보였습니다.

“아들아 너를 내 뱃속에 넣고 열 달 동안 고생한 것 공짜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것 모두 공짜

네가 아팠을 때 너를 업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 응급실에 데리고 간 것 공짜

네가 공 차다가 뒷집 유리창 (왕창) 깨뜨려 물어준 것 공짜

앞으로 너에게 들어갈 학비 모두 공짜” 그리고 그 밑에 쓰기를...

“아들아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엄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한다.”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 큰 글씨로 자신의 청구서 위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 전부 다 지불되었음!”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혹 앞서 말씀드린 초등학생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는 아니 하셨습니까?

‘제가 안 나올 수도 있었는데, 코로나도 그렇고 그런데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다른 성도보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십일조를 열심히 드렸는데 무슨 복을 주시겠습니까?’

‘저는 기도도 한번도 안빠지고 매일 열심히 하는데 어떤 복으로 저에게 주시렵니까?’ 이러한 삶도 물론 귀하지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너에게 생명주고 건강준 것 공짜. 너에게 평생 마실 공기주고 물 준 것 공짜. 너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 공짜. 사랑하는 나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너를 내 자녀로 삼

고 구원한 것 공짜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진 거라곤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성령께서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께 생각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만나 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그 곳에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가 있는 곳,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번 한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